

# 단풍 즐기며 20살 생일 “축하 축하”

## 예산 향천사 거사림회 ‘20년 도반애’ 지역불교 견인... 11일 단풍제

20년. 한 사람의 거사림회 나이로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예산 향천사 거사림회. 이들이 스무 살을 자축하는 축제를 연다. 11월 11일 향천사 단풍나무 숲에서 열리는 제1회 ‘향천사 단풍제’. 절 입구부터 대웅전까지 1.5km 가량의 향천사 단풍나무 길은 향천사 거사들의 20년 불심이 깃든 곳이다.

향천사 거사림회가 빛나는 이유는 20년 세월 때문이 아니다. 한결같은 신행으로 불심을 다지면서 향천사를 외호하고 지역 불교 발전을 꾀하는 초석으로서의 몫을 다했기 때문이다.

1986년 11명의 거사들이 모여 시작된 향천사 거사림회는 현재 128명의 많은 회원이 있고 있다. 향천사 유치원 건립과 일주면 및 금오교 건립 봉사 등 오늘의 향천사를 있게 한 주역이 바로 거사림회다.

특이한 것은 거사림회가 연평에 따라 두 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30대부터 50대까지 젊은 거사들의 모임인 ‘거사림회’는 사찰 행사와 지역불교 행사를 전담하는 향천사의 동력 역할을 하고 있고, 60대 이상 모임인 ‘유마거사림회’는 거사림회를 도우며 후배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거사림회’ 활동을 하다 60이 넘으면 ‘유마거사림회’로 편입되는 체계라 서 선·후배 간의 우애도 돈독하다.

물론 두 거사림회 모두 수행과 신행이 기본이다. 두 거사림회는 매월 11일 오전



향천사 거사림회는 사찰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행사때에도 손님맞고, 온갖 굿은 일을 도맡아 했다.

과 오후로 나눠 정기법회를 갖고 있고, 젊은 ‘거사림회’는 가을에 한 차례 적지사 법주사 등을 순례하며 1박2일 철야정진을 하고, 외부인사 초청법회, 교리강좌, 참선실수 등을 한다. ‘유마거사림회’ 역시 가을로 성지순례를 갖고, 참선정진과 교리강좌법회를 연다. 또 한 달에 한 번 ‘사찰공익사업회’를 열어 신심을 다진다.

특히 젊은 ‘거사림회’는 정기법회 때 반드시 부부가 함께 참석해 법문을 듣고 서로간의 정을 나눈다.

젊은 ‘거사림회’ 우재봉(55) 부회장은 “절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이 많아서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마거사림회로 가지 않은 회원들이 있다”고 귀띔한다.

향천사 거사림회의 또 다른 특징은 생업과 거사림회 활동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한 지역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도움을 줄만도 한데, 향천사 거사림회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생업과 신행이 연계되면 자칫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사림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거사림회에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은 삼보전

과 대중 앞에서 “신행을 열심히 하고 거사림회 규칙을 잘 지켜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 회원’은 이 기간 동안 정기법회 등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공부에 대한 열의도 보여줘야 한다.

향천사 거사림회는 11일 단풍제를 앞두고 유니폼을 맞췄다. 일체감을 느껴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복색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 핵반대와 환경·생명·인류평화 파괴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 위해서다. 단풍제에 앞서 거사림회원들은 일제히 유니폼을 입고 우산을 펼쳐들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행사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수행과 신행이라는 본래 활동 외에 현실참여를 통해 시대적 고민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주지 용산 스님은 “대중불교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사림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향천사 제1회 단풍제 및 거사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11일 오전 11시 창립 기념행사로 시작돼 오후 1시부터는 풍물공연, 어린이합창, 시낭송, 피리연주, 삼품이춤, 가야금 산조, 화상및 민요 등이 어우러지는 음악회로 단풍제를 수놓는다. (041)335-3556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 일터가 도량입니다

## 매일 새벽예불 참석해 신심 다져

안양개인택시불자회 신영전 회장

하루 종일 택시를 운행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 수고한다며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는 사람, 개인운전기사 부리듯 명령을 하는 사람, 의자 위에 발을 걸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욕을 하는 사람도,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사람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다.

예의바른 손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지만, 막무가내 손님을 만나면 택시 운전기사도 사람인 이상 불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손님을 하루에 한 두 번은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신영전(59) 안양개인택시

불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엔 고학력자도 많고 고위직에서 퇴직해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택시기사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신 회장은 현재 안양환경단체연합회 공동대표와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이사, 환경기구인 ‘안양의제 21’에서 교통환경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사회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열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매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안양 개인택시불자회의 중심인 신영전 회장(오른쪽)과 이대형 법사(가운데) 이은형 총무가 신회장택시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불자회(법륜회) 회장은 운전석 옆에 놓은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운전기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 손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 좋은 손님이든 그렇지 않은 손님이든 모두가 똑같은 고객이고, 고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 회장은 손님을 부처님처럼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륜회 회원들에게도 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 회장이 안양에서 택시운전을 한 지는 15년.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일반인의 선입견이다. 신 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이 점이다.

“택시운전기사하면 못 배우고 별

있다. 바로 새벽예불이다. 3년 전부터 신 회장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법륜회 재직사찰인 의왕 용화사에서 새벽예불을 올린 뒤 행들을 잡았다. 뿐만 아니라 매월 두 세 차례 진행되는 법륜회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싶었습니다. 신심을 다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해야만 우리 법륜회에 대한 일반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 회장은 ‘승객 포교’에도 열심이다. 때로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간내해 아할 부분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는 법당 안에서 부처님(승객)을 모신다는 자부심으로 행들을 잡는 신 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 “믿고 맡기고 다 놓아 보자”

### 한마음선원 ‘2006 법형제 수련회’, 250명 동참

한마음선원 거사들의 모임인 ‘법형제회’(회장 박원식)는 10월 28~2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250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6 법형제 수련회’를 개최했다.

“마음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믿고 맡기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20개 팀으로 나눠 팀별로 ‘왜 믿고 맡겨야 되는가’ ‘어떻게 믿고 맡겨야 하는가’ ‘왜 되돌려 맡겨야 하는가’ ‘사비 분별하는 마음을 무조건 놓기’ ‘자기 돌아

보기’ 등의 주제를 정해 토론을 벌인 후 발표시간을 가졌다. 법형제회는 참선, 마음의 등불 켜기(탑돌이), 선법가 배우기 등으로 신심을 다졌다.

또 이번 수련회는 법형제회 내의 24개 소그룹신행모임(신행회) 회원들이 20개 팀으로 분산 배치돼 낯선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특히 화합식 때는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이 참석해 “열심히 공부하라”며 법형제회원들을 격려했다.



수련회에서 선법가를 배우고 있는 한마음선원 법형제 회원들.

법형제회는 한마음선원 신행단체 중 공동역할을 하고 있는 모임으로, 복지·포교·교육·총무·재무·조직 등 6개 부서를 두고 다양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신도회장과 법형제회장을 함께 맡고 있는 박원식 회장은 “큰 스님

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에 있어 마음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나가야 하는지를 점검하는데 매우 유익한 수련회였다”며 “수련회를 빛내주신 큰스님과 해원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제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

- 기초반 :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중급반 : 각종 재의식(사물다루는 법)
- 고급반 : 바라 및 승무작법

기간 :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소 :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한주 아파트 옆)

연락처 : 055)745-8419

섭렵 영남 범음·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파  
강사 원 명

##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기주입법, 기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기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 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소 :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과정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저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비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11. 1부터 (월·화·수·목·주·야간반)  
※ 일요일 : 시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서울과 수원에서 가까운 기초 교리 기초요가 참선 템플스테이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 저녁 7시 ~ 일요일 새벽 1시까지

요일	시간	내용	구분
토	저녁7시	예불 독경	둘째 넷째
	8시10분 ~ 10시	기초교리	둘째
		기초요가, 선강	넷째
10시10분 ~ 12시	수식관	둘째	
	절, 좌선	넷째	
일	12시10분 ~ 새벽1시	차담(茶談) 회향	둘째 넷째

- 참가비 : 2만원 (기초교리 교재비 별도)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 오시는 길
- (1) 수원역에서 버스 (400, 400-1, 490, 490-1, 999, 999-1) 남양에서 하차 택시로 5분거리
- (2)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우회전 6km → 화성시청, 남양방면 좌회전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642

## 봉림사

☎ 031)356-9117